

2012년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이번 겨자씨인도자 수련회는 2월 24일과 25일 1박 2일동안 가평에 위치한 필그림 하우스에서 리더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인도자들이 참석하여 시간 시간을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주선애교수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평생 교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면서 다시 한 번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구목사님들과 함께 겨자씨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성령충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시간은 전통적으로 교구별로 모여서 작년 사역들과 올해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 겨자씨인도자들이 교구목사님과 함께 모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담임목사님과 함께 교회 정책과 비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또 한 가지는 유성훈목사님과 함께 그룹다이나믹에 대해 실제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인도자 모

임준비, 인도자 양육과정 그리고 작년 겨자씨헌금보고 등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어보면서 리더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짧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조정현 목사 >

팝콘트리 9color 수련회



주님의교회 팝콘트리 중등부는 2012년 2월 24-26일(금-주일)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벧전 4:10)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다른 이름은 9color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특별한 지성과 특별한 영성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성을

주셨는지 알아보았고, 다음날에는 9color영성이론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다양한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9color 수련회는 중등부 학생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등부 겨울수련회의 생생한 분위기는 자녀가 중등부 학생이기도 한 최종호 집사님의 소감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주님의교회 홈페이지 <http://www.pctv.org> 게시판에 꼭 봐주세요!)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심진희 목사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召命(소명)의 壯途(장도)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賞(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4)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攝理(섭리)와 順從(순종)하는 인간의 감동적인 歷史(역사)를 照明(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辭典的(사전적)의미

召命(소명) : 목자. 수도자. 사제 등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壯途(장도) : 중대한 사명이나 장한 뜻을 품고 나서는 길

文字的(문자적)의미

★**召(부를 소)** : “날카로움”의 상징인 刀(칼 도)에 “말 하다”의 뜻이 있는 口(입 구)를 합쳐 “준엄하게 말하여 부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命(목숨 명. 명령할 명)** : “말 하다”의 의미를 지닌 口(입 구)와 “명령하다”의 뜻이 있는 令(하여금 령)의 합자이므로 “上司(상사)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니 내놓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 목숨이다”라고 풀이 된다.

★**壯(장할 장)** : “나무연장”을 뜻하는 尗(조각 장. 장수장 변)과 “남자”를 뜻하는 士(선비 사)가 결합되어 “나무자루가 달린 연장 또는 무기로 일어나 전쟁을 수행하는 남자의 모습이 장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途(길 도)** : “주다. 넉넉하다”의 뜻이 있는 余(줄 여. 나 여)에 “길. 가다”의 뜻이 있는 辵(쉬엄쉬엄 갈 착)의 변형체 辵(책받침)을 합쳐 “넉넉히 베풀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길이다”라는 뜻을 만들었다.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_ 막 10 : 45

통 권 제 298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2년 3월 11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주님의교회의 ‘선한 마당쇠’ _주차안내부를 찾아서

주님의교회의 곳곳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는 말씀을 따라,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섬김의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이 숨은 청지기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마다 교회 정문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주차안내부 편입니다. _ 편집자

2월 26일 주일 새벽, 오전 6시

고요한 주님의교회 건물 지하 1층, 한 귀퉁이에 있는 좁은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연두색 점퍼를 입은 몇몇 사람들이 목도리와 장갑을 주스르면서 나왔다. 주차안내부 봉사자들이다. 운동장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고, 영하 4도의 새벽 추위가 목덜미로 스며들지만, 서둘러 러버콘과 나일론 줄을 낚은 운동장에 늘어놓기 시작한다. 7시 30분에 시작하는 1부 예배를 드릴 성도들의 차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정해진 주차 위치의 기준선을 운동장 위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부 준비 시간에는 봉사자가 늘 부족하다. 봉사자들의 눈에는, 부족한 인력에 혹시 놓친 공간은 없는지 긴장이 가득하다. 삼사십 분이 지났을까, 위치 표시를 마친 그들은 주차안내부실로 돌아온다. 열댓 명이 앉으면 딱 찰만한, 서너 평 남짓 되는 길쭉하고 좁은 공간에서 몸을 녹이면서 뜨거운 커피 한잔과 인절미 몇 조각으로 요기를 한다. 지금부터 주님의교회 ‘마당쇠’의 주일 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기본 안내자 위치 30곳, 항상 부족한 인원

“기본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안내봉사자 위치가 30곳입니다. 물론 1부 예배에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부 예배에는 680여대가, 3부 예배에는 최대 780여 대가 주차하게 되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주차안내부장의 중책을 맡게 된 강석인 안수집사의 말이다. 현재 주차봉사자로 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 “봉사자가 많으면, 시간대 별로 교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늘려 계속 할 수밖에 없지요. 고생들이 참 많으세요.” 강 집사의 얼굴은 햇볕에 그늘져서인지 검붉어 보인다.

주님의교회가 처음 정신학원 강당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1996년 무렵에는 성도가 2,0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가용을 보유한 성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주변의 지정된 주차 공간으로도 충분했다. 성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운동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신학원과 협의했고, 점차 면적을 늘려오다가 지금은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이 원래 학생들 운동하는 곳 아닙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운동장 바닥에 바퀴 자국이 나서 울퉁불퉁해집니다.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아주 위험하죠. 우리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장청덕 안수집사는 16년 동안이나 주차봉사를 해 온, 진짜 ‘주차의 달인’ 이다.

눈비 오는 날 운동장에 주차 금지하는 까닭

특히 눈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운동장이 바퀴 자국으로 파인 채 땅이 마르면, 학생들이 다음 날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운동장에서 바퀴에 묻은 흙이 거리로 나오게 된다. 도시 환경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다 까닭이 있다. 바퀴 자국이 누적되면 운동장 표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운동장 표면을 고르고 토사를 보충하는 평탄작업을 한다.

겨울 가뭄이 계속된 터라, 운동장에는 마른 먼지가 날렸다. 차량 사이를 바쁘게 오가면서 위치를 조정하던 원재환 집사의 양복바지가 흙먼지에 범벅이 되어 뽕뽕다. 그는 이제 1년차, 주차봉사자 중 막내다. 3부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자,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고, 2부 예배에 왔다가 뒤늦게 나가는 차들과 함께 정문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한편 교회 문 밖에서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일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댄다. 좌회전해서 나가려는 성도 차량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마당쇠’에게 가장 힘든 일, 세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군요. 첫째, 성도님들이 지시를 안 따라 주시는 경우입니다. 봉사자들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안내를 합니다. 특히 정문 밖에서는 외부 차량이 우선입니다. 정문에서



주간 목회력

<12단계 성지순례 참가자 추가 모집>
-모집인원 : 5명 / 기한 : 3.14(수)까지
-대상 : 2팀 (4.19~25)
<교사양성 및 교사계속교육>

-개강 : 3.18(주일)오후 3:30
-접수 : 3.14~3.11 / 1층 로비
<임시제직회>
-3.14(수) 예배 후

<정기당회>
-3.11(주일) 오후3:30 / 대회의실
<외부 청소년사역자 세미나>
-3.12(월) 오전9:30 / 소예배실

나갈 때 방향등을 켜주시면, 소통에 도움이 되죠. 어떤 경우에는 좌회전하려는 분을 오른쪽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외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럴 때 지시를 안 따라 주시면 교통이 꼭 막혀 버리는 것이지요.” 봉사자들이 입을 모은다. 교통 체증에 대한 인근 주민의 항의와 민원도 만만치 않다. 그 항의를 직접 감당하고, 교인들을 대표해서 겸손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두 번째는 과속입니다. 교회 공간 안은 도로가 아니고, 많은 보행자가 다닙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속도 정도, 아무리 빨라도 10km 이하 속도가 적당한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차가 많을 때, 일렬 주차를 해 놓고 연락처도 없이 안 나타나시는 경우입니다. 전화번호를 꼭 남기셔야 하고, 남기셨더라도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셔야 소통이 됩니다.” 간혹은 접촉사고도 있다. 지난주에는 어떤 외제 차량의 문 옆으로 긴 흠집이 나 있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주차봉사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다행히 아직 인사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았지만, 과속하는 차에 봉사자가 다칠 뻔한 적은 많다.

끈끈하고 결속력 강한, ‘금녀(?)’의 조직

간혹 성도 가운데, 주차봉사자들의 안내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봉사자들은 “안내 봉사 간 혈기, 언쟁 금지”라는 “봉사자 수칙”을 되새기곤 한다. 안내실 벽에 붙여 놓은 “봉사자 수칙”은 주차봉사자들이 지켜야 할 아홉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용모 단정, 인사하기(목례 15도)”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얼굴로 성도의 차량을 맞아주는 데에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숨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차봉사자들의 대부분은 50~60대이고, 가정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야말로 주님의교회의 ‘선한 마당쇠’라 불려야 하지 않을까?

하필 이렇게 힘든 ‘마당쇠’의 길로 이들을 이끈 동기는 무엇일까? “늘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주차봉사자들을 보면서, 동역해 보고 싶어서 자원했지요.” 4부 예배가 시작된 후 한숨 돌린 최재규 안수집사는 벌써 10년째 봉사중이다. “보람,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요.” 공치사 없는 그의 담담한 대답에 모두들 공감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봉사자들 간에는 끈끈한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꽃은일을 함께 하면서 생기는 특유의 결속력 때문일 터이다. 혹시, 힘 드는 일이니 여성에겐 기회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봉사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드보라 권사님인데, 4년 정도 봉사하셨지요. 절대로 ‘금녀의 조직’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대환영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의 대안, 대중교통과 카풀제

“주차봉사자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의 30% 정도는 혼자 타고 오시는 차들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주차 공간 때문에도 그렇고, 카풀제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거차씨 모임별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성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양보와 실천의 정신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의 나이에 이른 주차안내부의 원로, 장청덕 안수집사의 고언이다.

〈편집부〉



은혜로운 주차장 이용을 위한 우리들만의 약속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문화를 위해 주차안내부에서 정리해주었습니다.

1. 앞 유리창에는 알기 쉽게 **교회 스티커**를 붙입니다.
2. 주차할 때에는 항상 **연락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3. 정문을 출입할 때에는 **방향등**을 켭니다.
4. 교회 안에서는 **10Km 이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5. **눈비 올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6. **화단 앞에서는 전면주차**를 합니다.
7. 봉사자의 **안내와 수신호**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8. **일렬주차**를 했을 때에는 서둘러 차를 뺍니다.
9. **정문 앞길이 혼잡할 때에는** 안내에 따라 우회전합니다.
10. **차에서 내린 후에는** 보행로를 따라 걷습니다.
11. 혹시 **접촉 사고**가 났을 때에는 꼭 연락처를 남깁니다.
12. 주님이 보고 계시니, **서로 양보하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_01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

요섭(堯燮)은 장로님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애굽 총리대신이었던 요셉과 같이, 또 백성을 평안케 했던 요순(堯舜)시대 요임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빛을 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으로 한결같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하였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리빙스턴처럼 슈바이처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는 기도를 하였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프리카를 위한 헌신예배시간에 제 앞에 돌아온 헌금주머니를 들고 "주님 저는 여기에 저를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의 시절 누구나 그렇듯이 내가 그려보는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방황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목회자로 교사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한 마디가 흔들림과 방황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 청소년과 그 가정, 소외된 땅과 사람들을 향하여 더 잘 돕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겨울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셨던 어느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은 강의보다는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겠다고, 뭐든 질문을 하라 하시기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한 사람은 저였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제일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시고, 몇 몇 친구들의 질문에 진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에게는 참 귀하고 소중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다."는 것이었고 그분의 대답의 요지는 "하나님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처럼 시기적절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지금도 저의 영혼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대학생이 되어 세상에 대한 불평이 충만해 질 즈음 한 선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의 불평의 요지는 "세상이 옳지 않다. 바뀌어야 할 것 투성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 선배의 대답은 "바뀌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두고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지금도 귀한 교훈이 되어 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짧지만 단단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신도(?)의 삶의 여정을 거쳐서 신대원에 삼수하면서 부르심에 응답되었고 여기까지 두박 두박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 갚지 못한 사랑의 빛이 더 많이 쌓여만 가는 지금이지만 이렇게 되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채우는 햇살뜨락입니다." < 정요섭 목사 >

땅끝 편지_02

2012년 함글함글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호 '아버지

의 마음' 이후, 이번 호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실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나의 3개월차 아내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내..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더디기도 합니다.

나를 항상 집에서 기다려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을 해주며 회노락을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기

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주 가끔은 결혼 전에는 없었던 가사분담에 힘들 때도 있고 총각 때의 자유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올해는 승진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더 커졌기 때문에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아졌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30대의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에 당신이 실망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만 이제는 가장으로써 가족을 위해 벌어야 하고 눈앞에 다가온 승진기회와 다음달 매꿔야 하는 카드값 때문에 '예수님처럼'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나의 모습을 격려해주고 나의 힘든 상황과 약함을 이해하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늦은 퇴근과 회식이 더욱 미안한 것은 얼마 전 우리가 겪은 임신과 유산이라는 기쁨과 슬픔 때문이기도 해요. 좋은 소식을 들

은 지 2주만에 아픔을 겪어야 했죠. 요즘 워낙 그런 일이 많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고 당신을 위로했어요. 슬퍼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잠깐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한가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예요. 나에게 완벽한 당신을 주셨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라면 무엇이든 주시겠죠. 같이 기도해봐요. 주변에 아내에게 비싼 선물을 하는 친구를 보면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남자로써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마음만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나 인간다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선물할 수 없을 가능성도 많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지만, 나는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보고 사랑할게요. 정직한 남편이 될게요. 그리고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이 될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상황도 조금씩 변해가겠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지금처럼 뜨겁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요. < 이경훈 성도 >

